

통일시대를 향한 북한시의 미적 가능성

홍 용 희*

차 례

- | | |
|-----------------------|---------------------------|
| I. 분단 시대와 민족통합의 길 | 1. 탈이데올로기적인 서정시의 특징적 양상 |
| II. 자주시대의 문학과 미적 가능성 | 2. 민족적 전통양식과 계승 |
| III. 북한의 서정시와 민족적 친연성 | IV. 결론: 예언자적 신념과 통일시학의 정립 |

I. 분단 시대와 민족통합의 길

분단시대는 통일시대에 대한 지향성을 당위적 전제로 한다. 마치 손상된 생물체가 소생과 복원을 위해 자기 조직화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처럼, 분단된 민족이 화해와 통일을 갈망하는 것은 온전한 민족적 삶의 구현을 위한 당위적 조건이 된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민족사를 조망할 때, 분단시대는 궁극적으로 유기적인 민족적 통합을 향한 복원과과정으로서의 한시적인 의미를 지닌다. 우리 현대 문학사의 중심축을 이루는 분단문학의 주제의식이 궁극적으로 분단 극복 내지 민족통일의 길로 열려 있는 것은 분단이란 용어가 지닌 숙명적인 속성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분단체제가 이미 반세기를 넘어섰다. 해방 직후 좌·우 이데올로기를 명분으로 고착화되기 시작한 육중한 분단의 장벽이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지금까지도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남한의 민족통일 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거듭 수정·변화해 왔다. 남한 통일 정책의 변화 국면은 한국전쟁을 마디 절로 하여 그 이전은 상당히 호전적이었던 반면 그 이후는 상호 체제 인정에 바탕을 둔 점진적인 통일론을 제기하고 있다. 통일 문제가 위정자에 의해 분단 체제를 공고화시키는 방편으로 이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민족적 통합을 위해 나아가고 있었던 양상을 보인다.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1949년 반공체제강화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북진통일론이 개진되기도 하였으나 휴전과 함께 점차 후퇴한다. 1960년대에 이르면 5.16 쿠데타 세력의 혁명공약 제 5항에서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기울인다.”고 밝히고 있듯이, ‘반공체제의 재정비 강화’와 ‘국토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이 통일의 기본방향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국토통일을 위한 실력배양론은 1970년 ‘8.15 평화통일구상선언’에서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축구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사회의 공산 정권을 사실상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평화통일의 여건을 모색하겠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남북한 당국간의 최초의 공식 합의문은 잘 알려진 바대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1972년 7월 4일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이다. ‘7.4남북 공동성명’의 합의문은 남한의 10월 유신의 발표를 이유로 북측에 의해 유명무실화되고 말았으나 남한의 통일정책의 기본 방침으로서 지속적으로 작용한다. 1982년 1월 22일 제시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1989년 9월 11일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은 모두 ‘7.4남북 공동성명서’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정책의 취지를 기본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의 공존공영과 민족의 동질화, 민족공동생활권의 형성 등을 추구하는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남북한의 통일 정책의 결정체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6.15선언이

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핵심 내용 역시 남북한이 당장 제도적·법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현재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교류협력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데 합의한 것이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과도적 통일체제로서의 ‘남북연합’이 계승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의 통일 정책은 조선 노동당 규약 전문에서 나오듯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건설을 기본 방침으로 한다. 북한의 통일 방안을 시대 순으로 개관하면 해방 직후는 ‘하나의 조선’ 논리에 입각하여 북한 사회의 ‘민주기지론’에 의한 무력적화통일이었다.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은 그 구체적인 실천적 감행에 해당한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 북한 사회는 연방제를 제의한다. 1960년 8월 14일 8.15 해방 15주년 기념연설에서 제안한 연방제의 내용은 “당분간 남북 조선의 현재 정치체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 조선의 경제·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자”¹⁾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연방제에 대한 방침은 약간의 변용을 거치면서 1990년대 들어오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6.15민족공동선언’에서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상호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즉, 남북한의 통일정책은 공통적으로 현단계에 대해 상호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적 동질성과 연대의식을 확장하는 과다기로 규정한다.

이점은 통일시대를 향한 문학적 도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문학적 논의는 남·북한 문학의 이질성·대립성의 요소에 대한 강조보다 동질성·유사성의 요소를 재발견하고 인식하는 유효적인 자제가 요구된다. 이것이 남북한의 진정한 민족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연합제안의 충실한 문학적 실천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냉엄한 분단체제의 경계선을 허물고 민족 연합의 길을 열어가 수

1) 《로동신문》 1960.8.15.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 반세기에 가까운 민족 분단의 역사가 침전시킨 이질성의 커를 극복할 수 있는 틈새는 어디에 있을까.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민족적 연대의식과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1990년대 북한의 탈이념적인 서정시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민족적 친연성과 연대의식을 확장하는 시적 형질은 남·북한의 심층 세계를 공통적으로 관류하는 민족적 정서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II. 자주시대의 문학과 미적 가능성

북한에서 문학예술이 당의 정책을 반영·생산·교양하는 지배담론 기체로서의 지향성을 분명히 드러낸 것은 북조선예술총동맹(1946,3,5)이 결성된 이후 첫 번째로 시달된 문예지침, ‘건국사상운동’(1946,4,25)에서부터이다. 건국사상운동에서 김일성은 문학이 모범적인 인물 유형을 창조하여 대중들을 교양할 것을 교시한다. 이후 제기된 <<옹향>>사건(1946,12,20), ‘고상한 리얼리즘’(1947,1,1), ‘반종파 척결’(1953) 등은 모두 북한에서 문학이란 당의 지배 정책과 일원론적인 연속성을 지님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북한에서 1967년이 되면 주체적인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본성과 특질, 창조 원리, 창조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주체문예이론』이 간행된다. 이 책의 서장의 제목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시하신 독창적인 문예리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문예리론”²⁾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영생불멸”이란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북한이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포기하지 않는 한 주체문예이론은 종교적인 신념의 범주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2년에 김정일이 간행한 『주체문학론』³⁾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감지된다. 이 책의 기본적인 저술 동기는 “문학이 시대와 인민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려면 자주적 길로 나아가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켜야 한다.”(1쪽)는 데에 있다. 여기에서 “자

2) 김일성, 『주체문예이론』, 사회과학출판사, 1967.

3)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노동당출판사, 1992.

주의 길”은 1990년대 북한이 표방하는 “자주의 시대”를 가리킨다.⁴⁾ 1990년대를 전후로 세계질서가 이념적 대결과 반목에서 상호 협력과 경쟁의 경제 공동체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체제 붕괴의 위기를 맞이한 북한은 먼저 “우리식대로 살자”(1990)는 폐쇄적인 민족적 자주성을 강조하게 된다. 해외 유학생들을 귀환시키고(1992), 평양 역포구역에 동명왕릉을 복원하고(1993), 단군왕릉을 개건(1994)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김일성과 김정일로 이어지는 민족주의의 신화를 창조한 것도 1990년대 자주성의 시대의 산물이다.

이와 같은 폐쇄적인 민족주의와 자주성의 원리는 사회의 내부적 통합을 위한 허구적인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민족 문화 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평가의 능동적인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민족 국가를 단위로 하여 그 어느 때보다 세차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 “민족문화 유산”을 발굴하고 재평가하는 것은 “민족적 자존심과 민족 제일주의의 중요한 표현”(57 쪽)이라는 논리를 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면에서 『주체문학론』⁵⁾의 2장 ‘유산과 전통’은 단연 주목을 끈다. 특히 2장의 3절 ‘민족문화예술유산을 주체적립장에서 바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실학과 문학, 민요 및 시조 형식, 궁중 예술 등의 고전문학과 함께 계몽기 문학, <카프>문학, 일제시기 진보적인 문학을 포괄하는 근현대문학사의 공정한 평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계몽기와 일제시기 진보적인 작품의 작가로 이인직, 이광수, 최남선, 신채호, 한용운, 김억, 김소월, 정지용, 심훈, 리효석, 방정환, 문호월, 라운규 등을 직접 거명하고 적극적인 평가의 필요성을 개진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설령 “작가의 출신과 사회생활 경위가 복잡하다 하여도 우리나라 문학예술 발전과 인민의 문화정서 생활에 이바지한 좋은 작품을 썼다면 그 작가와 작품을 아끼고 대담하게 내세워 주어야 한다.”(83쪽)는 문예 미학에 대한 열린 시각을 토대로 한다. 문학 작품에 대한 평가 기준의 무게 중심을 종전의 작품 외적 요소에서 작품 내적 요소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자주시대와 민족주의(조선민족 제일주의)를 강조하면할수록 우수한 유산과 전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명

4) 줄고, 『북한의 서정시와 민족적 친화성』, <시안> 1998 창간호, 참조.

5) 김정일, 『주체문학론』, 사회과학출판사, 1992.

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의 논지는 1990년대들어 15권에 걸쳐 간행된 《조선문학사》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특히 1920년대 후반기에서 1940년대까지의 문학사를 다룬 《조선문학사 9》⁶⁾에서 이 점은 두드러지는 바, 1967년 주체문예이론이 정립된 이후 거세되었던 카프문학은 물론 진보적인 민족주의 문학에 대한 다채롭고 섬세한 논의가 개진되고 있다. 한용운, 양주동, 박로아, 김달진, 심훈, 정지용, 백석, 김태오, 리용악, 윤동주 등의 시인들의 작품세계를 대폭 수용하여 예시하고 긍정적으로 논의 평가하고 있다. 이점은 북한 문학사에서 작품의 질적 고양을 불러일키는 중요한 계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문학 독자들이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직접 읽고 감상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의 ‘사상적 무기로서’ 창작된 생경하고 도식적인 작품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문예 창작의 현장에서 이러한 시적 가능성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그 주된 이유는 반세기가 넘는 타성적인 세월의 관성을 극복하기에는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김정일 시대가 아직 현실적으로 다양한 문학적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안정기에 접어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주체문학론』에서 제기한 과거의 민족문화예술에 대한 긍정한 평가는 궁극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문예 창작의 질적 고양을 가져오는 중요한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북한의 서정시와 민족적 친연성

1. 탈이데올로기적인 서정시의 특징적 양상

1990년대 이후 북한 시의 주류를 형성하는 시편은 대체로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및 김일성 가계 예찬, 김일성 사망에 대한 추모, 당에 대한 찬양 등의 기존의 시 세계의 지속과 함께 ‘고난의 행군’, ‘붉은기 사상’, ‘강성대국론’, ‘선군정

6) 류만, 《조선문학사 9》, 조선노동당출판사, 1995.

치' 등의 김정일 시대의 시대정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들 시편들은 대부분이 지배 이데올로기가 응집된 매우 선동적이고 경색된 시어로 형상화된 특징을 지닌다. 1990년대 북한 시 역시 김일성-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교조주의적 사회체제의 지배 이념을 반영하고 재생산하여 사회의 정신 습속으로 내면화시키는 공식적인 담론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숨은 영웅의 형상화, 노동의 신성성 고취, 민족통일의 염원, 자연풍경에 대한 찬탄 등의 일부 시편들에서는 탈이념적인 순정한 삶의 언어세계를 만날 수 있다. 북한에서 이와 같은 기존의 관행화된 혁명적 낭만주의의 도식성과 변별되는 서정시편은 해방 이후부터 문학사의 주변부에서 면면히 이어왔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자기 위상을 확보해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문학은 지배이데올로기의 대중적 교양의 수단이라는 본령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교조적인 상투성과 도식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요구된다. 그래서 김정일은 간헐적으로 1972년 <문학예술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를 비롯하여 1974년 <우리의 사회주의 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 문학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1980년 <1980년 문학예술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 등에서 작가들의 창작의 개성과 예술적 형상화의 함양을 힘주어 강조해왔다. 그러나 작가의 개성적 특성에 대한 강조가 “주체적인 창작 체계와 창작 원칙”의 철저한 구현이라는 전제 속에서 개진됨으로써 정작 구체적인 실효성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비교적 탈이데올로기적인 서정시편에 주목하기로 한다. 통일문학은 남·북한 문학의 공통된 민족적 원형질의 요소와 접미지대를 찾는 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북한 서정시의 언어세계는 대체로, 다원적이고 상대적인 의미의 다의성으로 열려 있지 못하고 지시어적인 차원의 의미의 단의성으로 수렴되는 면모를 보인다. 다시 말해 북한 시의 언어세계는 언어의 내적 대화성과 독자들의 응답적 이해의 길이 차단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에 탈이념적인 서정시를 창작하는 전담 시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권력적인 지배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재생산하는 작품의 창작에 동참하면서 몇 편의 순수 서정시를 발표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북한 서정시의 경직된 언술 체계는 이미 시인들에게 관성화된, 작품을 통하여 단일한 사고체계의 규범 속에 독자

들의 의식을 종속화시키고자 하는 권력의지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서정시에서 우리들에게 민족적 연대의식과 공감대를 가장 깊이 느끼게 하는 유형은 분단 극복과 통일 염원을 다룬 작품이다. 민족 분단은 남·북한의 비극적인 삶의 운명을 강요한 가장 직접적이고 공통적인 문제적 상황인 것이다.

잡초 무성한 관산나무언덕
 분계선이 가로 건너간곳에
 후두둑후두둑
 떨어지는 감알
 (중략)
 저렇게도 탐스러운 감알을 고여 놓은
 잔치상 받고
 립진강 건너 파주로 시집 갔다는
 이 마을 처녀들
 감알처럼 빨갳던 그 얼굴들에
 지금은 주름살이 퍼그나 깊어 졌으리
 (중략)
 이 가슴을 친다
 이 땅을 친다
 주인을 부르며 통일을 부르며
 후두둑 후두둑 아, 떨어지는 감알
 - 전병규, 「떨어지는 감알」 일부

“분계선이 가로 건너간 곳에” 감나무는 예전부터 한결 같이 서 있지만, 그 나무의 감알을 “고여 놓은 잔치상 받고” 립진강 건너 시집 갔다는 마을 처녀들은 볼 길이 없다. “감나무”만이 남아서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는 형국이다. 그래서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감알의 소리는 “주인을 부르며 통일을 부르”는 안타깝고 애잔한 소리로 들린다. 감나무에 얽힌 과거의 곡진한 추억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든 군사분계선의 비극상을 명징하게 표현하고 있다. 한편, 다음 시편은 남녘의 어머니에 대한 절실한 그리움을 통해 분단의 비극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참으로/그날이 와서 통일이 와서/문득/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면//아아, 너
 무도 역이 막혀/수수십년 새겨온 그 말들을 다 잊고/가슴 터지고 심장이 터

지는 소리/다만 엄마 - 허고 울릴게다//장에 갔던 어머니 늦어만 와도/엎어
 질 듯 달려가 안기던 목소리/하루만 떨어졌다 만나도/마냥 응석을 부리던
 목소리//세밤 자고 오마고/외가에 간 어머니건만/까맣게 기다리던 그 세밤이
 /천번만번 지나도록 못오신 어머니/칠순도 다 넘은 백발이런만/상기도 내머
 리 속엔/아주까리 기름이 반드럽던/가리마 반듯한 그 까만 머리뽕//어머니
 어머니/어머니를 만나기전엔 더 먹을수 없는 이 나이웁고/이 아들을 보기전
 엔/차마 눈을 감을 수 없는 어머니려니//---//어머니와 이제 만난다면/나이
 도 세월도 다 잊고/헤어질 때의 그 나이로 되돌아가/어머니 치마폭에 안기
 리다

- 리종덕, 「참으로 어머니를 문득 만난다면」, (『조선문학』, 1991,6) 에서

통일에 대한 열망이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의 정서를 통해 깊은 호소
 력을 얻고 있다. 특히 유년기에 어머니를 향해 “엎어질 듯 달려가 안기”고 “마
 냥 응석을 부리던” 모습에 대한 회상은 누구에게나 간곡한 어머니에 대한 보편
 적인 원체함을 환기시킨다. 그래서 분단 극복과 통일에 대한 열망은 논리이전
 의 생리적 차원에서의 깊은 정서적 공감을 얻게 된다. 이산가족의 혈육에 대한
 그리움은 어느새 분단이데올로기를 훌쩍 뛰어넘어 민족통일의 연대의식을 형
 성해내고 있다. 이것은 또한 혈육에 대한 그리움이 분단이데올로기의 억압적인
 허구성을 명징하게 반사시키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북한의 통일 시편에는 기념시의 양식을 통해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상당히 섬세하고 밀도 높게 형상화한 작품들이 있어 주목된다.

① “다시는/남남처럼 마주설 수 없는 우리/이제 다시/서로 다른 국호를
 달고 승부를 겨뤄야 한다면//겨레여, 차라리/ 우리는 통일을 바란적 없다고
 하자/세계 앞에서 너는/하나의 혈육이 둘로 갈라 졌다고/눈물의 하소연도
 하지 말자 ”

- 장혜명, 「박수를 치자」에서

② “이 길로 우리 모두 함께 가고 싶다/평양 랭면 맛에 서울 깎두기 맛
 도 보며/동서 팔방 내 나라 삼천리 이 땅/(중략)/가다가 향기 짙은 강계 산
 골도 맛보고/목마르면 호남 샘물 표주박에 떠마셔 보며/가다가 밤이 되면
 정방산이나/춘향도령 지금도 있는 듯한 <<남원땅>>에서 쉬고/(중략)/그들
 과 더불어 진도 아리랑 들으며 울어도 보고/그들과 더불어 봉산탈춤 보며
 웃어도 보며”

- 리호근, 「함께 가고 싶다」에서

“《코리아 유일팀》 축구 경기를 보며”라는 부제가 붙은 시 ①은 남·북한 축구 단일팀 구성에 대한 벽찬 감격과 더불어 대결과 반목으로 점철된 분단의 역사에 대한 원망이 절실하게 그려지고 있다. 화자가 새삼 “통일의 원수”들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는 것 역시 지금까지 “서로 다른 국호를 달고 승부를 겨”루어 왔던 분단체제에 대한 부정 의식의 강한 표출이다.

“범민족 대회장을 나서며”라는 부제가 붙은 시 ②는 “평양 랭면, 서울 깎두기, 강계 산골, 호남 샘물, 진도 아리랑, 봉산탈춤”등의 남·북한의 민속 예술과 풍물 그리고 국토에 대한 애정을 통해 민족 공동체의식을 확인하고 나아가 통일의 당위성을 절박하게 노래하고 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통적인 풍속과 민요들은 어느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북한 모두가 공유해온 민족적 삶의 근원성을 이루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재들은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적 연대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직접적인 대상들이다. 북한에서 통일 염원 시의 창작은 1990년대에 들어 더욱 활발하게 창작된다. 당시 문익환, 임수경 등의 남한 인사의 방북은 북한 사회에서 통일의 열기를 더욱 고양시키는 촉매가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방북 인사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매우 높았으며 문학작품에서도 중요한 소재로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러나 정작 2000년대 이후에는 통일시편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은 아마 ‘6.15민족공동선언’의 구체적인 평가와 실천이 아직 여러 국내외정세와 뒤얽히면서 현실적으로 유보되고 있는 상황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북한 사회가 절박하게 처해있는 대외적 개방과 내부적 통합이라는 모순명제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북한의 통일시편의 향방과 빈도도 결정될 것이다.

다음으로, 가로막힌 분단의 장벽에 대한 안타까움과 북녘 땅에 대한 향수를 응축적으로 환기시키는 북한의 중요 서정시편으로 아름다운 자연 풍경에 대한 찬탄의 시를 들 수 있다.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약산 등의 웅혼한 풍모와 빼어난 절경에 대한 묘사는 우리들의 지워져 가는 기억과 상상 속의 풍경을 선명하게 되살려 준다는 점에서 관심을 환기시킨다.

① 너만이 백두산에 호수를 이루었구나/ 너만이 이 땅에서 가장 높고 신성한 곳/해썬고 별 돋는 하늘가에 출렁이누나//백두의 해돋이가 시작될 때/ 환희에 넘쳐 뛰노는 네 물방울/ 태양을 우러러 무엇을 속삭이느냐//새별이

첫불을 켜들 때/진주처럼 빛을 뿜는 네 물결/별빛 우러러 또 무엇을 속삭이
느냐

- 「천지의 물」(한원희, 1992,8)에서

② 천하절경 높이 솟은 바위 모두가 /마음이 있어/하많은 이야기 안고 들
먹이는 듯//아쉬워라/차마 발걸음 떼기가/비로봉의 폭포소리//(--)//아 금강
산아/너와 이틀밤 사흘낮/ 시간은 짧아 날은 꿈속처럼 흘렀어도/내 두고두고
쌍인 정/너에게 빼앗겨서/너를 떠나자하니/한가슴에 들어앉네/조선의 금
강/아름다운 내 조국의 자랑이/이 땅에 태어나 삶을 누리는/조선사람 된 끝
없는 자랑이

- 「금강산을 떠나며」(리정택,1991,8)에서

북한의 자연의 풍경을 다룬 시편들은 대체로 직서적인 어조를 통한 소박하고 단조로운 묘사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북한 시인들은 당에서 결정한 문예지침에 따라 수동적으로 창작활동을 수행하는 관성에 의해 정작 탈이념적인 소재의 창작 행위에서도 뚜렷한 예술적 독창성과 유연한 사고의 깊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 ①의 배경은 백두산 천지이다. 우리 민족의 성소에 해당하는 백두산의 신비로움과 경이가 정제된 비장미를 통해 묘사되고 있다. “이 땅에서 가장 높고 신성한 곳/해 솟고 별 돋는 하늘가에 출렁”이라는 묘사는 백두산 천지의 웅혼함과 더불어 신성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다만, 백두산 천지에 대한 시인의 주관적 내면의식이 좀 더 섬세하게 응축되지 못한 점이 아쉽게 느껴진다. 시 ②는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천하절경 높이 솟은 바위 모두가/마음이 있어/하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다는 진술에서 서경의 서정적 치환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개인의 내면적 서정이 좀 더 깊고 면밀하게 확산시키지 못하고 “아름다운 내 조국의 자랑”이라는 일반론으로 환원됨으로써 평면적 층위에 머물고 만다.

이상의 시편들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평면적인 묘사에 그치는 아쉬움을 주지만, 그러나 멀고 아득하게만 느껴졌던 북녘의 산하를 우리들의 눈앞에 성큼 다가서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간의 민족 공동체의식을 배가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음으로는 전통적인 민속행사와 지역 특산물을 중심 소재로 한 북한 시편

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설날,한가위,단오 등과 같은 명절을 소재로 한 작품은 민족적 정체성의 확인과 더불어 북한에서 계승하고 있는 전통 풍속의 실태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를 끈다.

① 하늘의 은방울이 맑게 울리니/북소리, 웃음 속에 하늘 땅이 묻히겠네/
등근 단오떡 손에 든채/동네방네 아이들 다 달려오고/저기 씨름터의 누런
송아지도/제 좋아 경충 뛰노라네

- 「5월 단오」(백의선,1990,5)에서

② 대동강에 잠긴 보름달을 건져온듯/시누런 늦쟁반에 들여온 국수//내
고향 사람들의 후한 인심인양/ 듬뿍 놓인 고기꾸미 골고루 섞어가며/쫄쫄
들이키던 그 맛이란 참---//그래서 내 그이야길 했더니/동부들도 저만큼 그
이야기/글쎄 옥류관 국수 이야기

- 「옥류관 국수맛」(박세일,1990,7)에서

시 ①의 “단오떡”, “씨름판”, “송아지” 등의 시적 소재가 질박한 향토적 정서를 환기시킨다. 5월 단오의 농경사회의 전통적인 행사가 북한 사회에서 온전히 계승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②시에서 늦쟁반에 들여온 국수에 대해 “대동강에 잠긴 보름달을 건져 온듯”으로 비유함으로써 옥류관의 독특한 국수 맛을 시각적으로 실감있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듬뿍 놓인 고기꾸미 골고루 섞어가며” 등의 표현이 옥류관 국수의 풍성한 미각을 현장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분단의 역사가 반세기에 이르렀으나 남·북한의 고유한 민속행사와 먹거리의 기호는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적 연대의식을 새삼 환기시킨다.

이상에서 살펴보듯 북한 시의 형식원리는 대체로 전통적인 민요 형식에 가까운 반복적인 나열과 각운의 효과를 살리는 기법이 두드러지고 있다. 북한 시는 비교적 서술형에 가까운 내용 전개를 형식미의 예술적 의장을 통해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북한 서정시들이 단성적인 지시적 언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적 의미의 상징적인 다양성과 깊이를 획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시의 위의를 갖추기 위한 방법은 언어의 형식미에 대한 추구로 집중될 수밖에 없게 된다. 북한이 서정시의 창작에서 언어의 미감을 살리는 어조와 전통 시가의 운율에 깊은 천착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문면에서 이해된다.

2. 민족적 전통양식과 계승

이미 앞 장에서도 강조한 바처럼, 북한의 문예 작품은 인민들에게 당의 혁명 위업을 쉽게 설명하고 선동하는 역할을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시는 매우 정론적이고 서사 지향적인 경향을 띤다. 대부분의 북한 시들이 서사적- 서정시로서의 장대한 형식을 띠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이 시적 형식미와 정서적 감응이 결여된 북한 시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근자에 날카롭게 제기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그 육성을 직접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고전시가의 류창한 운률과 함께 간결성과 섬세성, 온갖 형상적 묘기들을 또한 따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중략) 단 4줄의 민요와 단 3줄의 시조에 하나의 아름답고 선명한 화폭이 어려오고 서정적 주인공의 성격과 지향, 나아가서 당대 현실까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상적 묘기들을 자기 창작에 도입해야 하겠는 데 너무나 우리 시들엔 역설이 많고 이런 저런 사료들이 인입되어 읽을 맛도 없고 외우기도 힘듭니다. (중략) 아무리 문장을 잘 다루는 재사라도 사료인입에 3~4련은 소비해야 할 것이고 앞 뒤로 감정 조직을 하려면 또 몇련, 그리고 나면 시인은 아직 제 할 소리를 못하고 있는 데 시는 10련을 넘어섭니다. 솔직히 사료 작업이야 체험단계의 공정이 아닙니까. (중략) 외국사람들도 오묘한 그 시구에 현혹되어 수첩에 베껴주기를 갈망하는 황진이나 력대 가인들의 우수한 시조들을 문학사 속에만 소장시켜 두지 말고 자기의 작품들에 적극 살려 우리 시대, 선군시대에도 그보다 못지 않은 시조가 있소하고 세계에 소리치게 될 때 그 이상의 애국애족이 어디에 있으며 또 그 이상의 민족성 구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자기 작품과 함께 애국자로서의 시인의 생애도 남게 될 것입니다.⁷⁾

북한 문예지에 발표되는 절대 다수의 평론이 김정일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선군시대 “총대서정”의 선명성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평안북도 작가동맹 소속 시인 김정철의 위와 같은 시적 미의식에 관한 지적은 매우 참신하고 모험적인 목소리로 들린다. 북한 시의 문제점에 대해 “읽을 맛도 없고 외우기도 힘”들며 “체험단계의 공정”에 해당하는 “사료 작업”의 “인입”으로 인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음을 솔직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

7) 김정철, 「민족성과 우리 시, 생각되는 몇가지」, 『조선문학』 2003. 7.

가 그 극복의 방안으로 민요와 시조의 절제된 형식미와 내밀한 서정시학의 계승을 제시하고 있다. 김정철은 이러한 자신의 시론을 직접 창작을 통해 시범적으로 실현해 보인다.

하늘나라 계수나무 동산에서 /이해도 잊지 않고 우릴 찾아 왔구나 /정월도 보름날 내 집 추녀아래/싱글빙글 웃으며 들어서는 둥근 달/<<잘 있었소 친구들, 내 왔소>>/(---)//보름날에 일찍 자면 눈썹이 센다고/들판에 얼음판에 오구작작 저 사람들/ 천하를 비치는 너의 그 거울 속에/이 밤도 고조선의 쥐불이 타고 있다/이 밤도 고구려의 그 팽이가 돌고 있다// 달 같은 님을 보자 님 같은 달을 보자/울 넘어 담 넘어 날 뛰던 너인네들/너는 오늘도 그네들의 정을 담아/저 하늘에 휘영청 밝은 초롱불을 켜 들었는가//어찌 보면 이 해의 보름달은/우리 군대 그 걸음에 발맞추자 둥둥/온 나라를 부르는 선군의 쇄북인가/ 발차의 푸른 등이 그 앞에 켜진/통일의 렬차의 둥그런 쇄바퀴가

- 김정철, 「보름달이 왔소」, 일부(2003,1)

민족 풍속인 정월 대보름의 전통적인 정서를 4,4조의 친숙한 음보를 통해 소박하게 노래하고 있다. 특히 “이 밤도 고조선의 쥐불이 타고 있다/이 밤도 고구려의 그 팽이가 돌고 있다”는 표현은 유구한 우리 민족 전통의 살아있는 역사를 역동적으로 일깨우는 효과를 얻고 있다. 이러한 민족적 전통의 남성적 역동성의 시상은 순박한 여인의 그리움의 정감을 거쳐 다시 현재적 창조의 힘으로 전승되고 있다. “선군의 쇄북” 소리와 “통일 렬차의 둥그런 쇄바퀴”의 추동력이 그것이다. 시적 화자는 고대에서부터 이어져온 대보름날 보름달의 그윽한 정서를 전통적인 시가의 미의식을 통해 “입을 맛”과 “외우기도” 쉬운 언어로 노래하고 있다. 물론 시적 표현과 정감이 지나치게 소박하면서 관습적 상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형성이 노정되고 있지만 북한 시에서 전통적인 시적 미의식의 현재적 계승을 의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작품이란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김정철 시인의 이와 같은 전통적인 형식미와 민족 정서의 현재적 계승은 이외에도 「분홍저고리 내 누님네들」, 「밝은 달아」 등의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김정철의 이러한 시 창작의 시도에 대한 북한의 평가를 직접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시문학부문에서 민족적인 정서를 취급한 서정시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 것은 우리 인민을 민족 자주정신으로 교양하는 데서 자못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조선문학》 잡지에 발표된 서정시 《보름달이 왔소》, 《분홍저고리 내 누님네들》(김정철 작)은 좋은 싹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자아낸다.⁸⁾

북한의 평론가 김덕선은 민족적 전통시의 창작에 대해 자주정신의 교양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앞 장에서 제기한 1992년 간행된 『주체문학론』이 내세운 자주시대의 문예관이 폐쇄적인 민족주의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민족적 전통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경하고 상투화된 북한 문학 자체의 변화의 계기성을 추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장면으로 파악된다. 특히 김덕선이 위의 평론에서 “달”을 소재로 한 시적 계보로서 구전가요, 「정읍사」를 비롯하여 박인로, 「달을 바라보며」, 김소월 「달맞이」, 김철, 「금야만에 달이 뜬다」 등을 열거하고 있는 대목은 이러한 가능성을 거듭 증명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전통 시가의 형식미와 정서를 계승한 문학작품의 확대는 북한 문학의 질적 고양과 아울러 통일 시학의 정립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질화의 극단을 치달아 온 남북한의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모색은 민족적 동질성과 연대의식의 확장에서부터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결론: 예언자적 신념과 통일시학의 정립

이상에서 살펴보듯, 북한의 탈이데올로기적인 서정시편에는 비교적 민족적 동질성과 연대의식을 환기시키는 원형심상이 주조음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한의 삶의 방식과 시적 위상의 큰 격차에도 불구하고 이들 작품들은 남한의 독자들에게도 높은 감응력을 확보하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서정 시편은 남·북한의 민족적 동

8) 김덕선, 「민족의 향취, 참신한 맛」, 『조선문학』 2004. 2.

질감과 연대의식을 우리들의 일상적 삶 속으로 내면화시키는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근자에 북한 시단의 자체 내에서 제기된 전통시가의 창조적 계승에 대한 논의와 창작 실체는 이러한 문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러한 서정시편에 관한 탐색은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상응하는 시적 추구에 직접 해당된다는 점에서 새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민족통합의 그날은 과연 오고 있는 것인가.

“무엇하러 여기 왔는가.//잠 못 이룬 밤 지새우고 /아침 대동강 강물은/어제였고/오늘이고/또 내일의 푸른 물결이리라.//때가 이렇게 오고 있다./변화의 때가 그 누구도/가로 막을 수 없는 길로 오고 있다.//변화야말로 진리이다.”(고은, 『대동강 앞에서』 2000,6,14)

우리 맞고 보내온 날과 날 중에/온겨레가 환희속에 맞은 6.15/분렬의 고통을 기어이 가실/우리 민족 의지비긴 통일 6.15//((중략)//통일의 이정표 세워왔으니/통일축포 울릴 날도 멀지 않았네/민족의 밝은 태양 우러러보며/길이길이 노래하자 통일 6.15

(곽명철, 『통일 6.15』 2004,6)

위의 시편들은 모두 2000년 6.15민족공동선언을 배경으로 한 남한과 북한의 통일시편이다. 남한과 북한의 시인 고은과 곽명철은 각각 “때가 이렇게 오고 있”음을, “통일축포 울릴날도 멀지 않”았음을 예언자적 통찰의 언어로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우리에게 민족적 연대의식을 확장할 수 있는 통일시학의 적극적인 탐색과 영역확대를 요구한다. 완전한 민족 통합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정치적 차원 이전의 생활 문화와 감각의 차원에서 “남북한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과정을 충실히 수행해 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제어 : 분단시대, 통일시대, 민족통합, 자주시대의 문학론, 탈이데올로기적 서정시, 민족적 연대의식

참고문헌

-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노동당출판사, 1992.
- 김정철, 「약산의 진달래」, 『조선문학』 1994. 1.
- 곽명철, 「통일 6.15」, 『조선문학』 2004. 6.
- 김덕선, 「민족의 향취, 참신한 맛」, 『조선문학』 2004. 2.
- 김일성, 『주체문예이론』, 사회과학출판사, 1967.
- 김일성, 8.15 해방 15주년 기념연설, 1960. 8. 14.
- 김정일, 「1980년 문학예술이 나아가야할 길에 대하여」, 1980.
- 김정일, 「문학예술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 1972.
- 김정일, 「우리의 사회주의 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 문학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1974.
- 김정철, 「민족성과 우리 시, 생각되는 몇가지」, 『조선문학』 2003. 7.
- 김정철, 「보름달이 왔소」, 『조선문학』 2003. 1.
- 《로동신문》 1960. 8. 15.
- 류 만, 『조선문학사 9』, 사회과학출판사, 1995.
- 박세일, 「옥류관 국수맛」, 『조선문학』 1990. 7.
- 백의선, 「5월 단오」, 『조선문학』 1990. 5.
- 신지락, 「어머니의 모습 -림진강 나무가에 한그루 버드나무가 있다」, 『조선문학』 1995. 3.
- 윤명선, 「백두산의 진달래」, 『조선문학』 1990. 3.
- 홍용희, 「북한의 서정시와 민족적 친화성」, 《시안》 1998. 창간호.

<Abstract>

The Aesthetic Potentiality of North-Korean Poetry towards the Era of Re-Unification

Hong, Yong-Hee

It is required to recover and recognize the similarity and identity of Korean literatur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opening united period. This effort will fulfil real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its literature.

Then how we can break the wall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half century? This article is written to answer that question. This article is mainly about post-ideological North Korean poems in 1990's. Post-ideological North Korean poems in 1990's can be considered as a key to sympathize national identi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e can understand through this article that post-ideological North Korean poems use national symbol which remind Korean national identity. These poems can be read easily for South Korean readers in spite of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poetry. Because of this reason, these poems can effect the goal of reunification South and North Korean literature. Especially those poems which are written to recover traditional poetry mean much in this effort for unification. Also studies of post-ideological North Korean poems mean much as literary ways also

Key Words : divided period, united period, national reunification, literature theory in self-nationalism, post-ideological poems, national identity.